

추신수·류현진, 코로나19 재난 수당 하루 4,775달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MLB선수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 수당을 지급한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MLB 사무국과 선수 노동조합은 5월 25일까지 베테랑 선수(풀타임 경력 5년 이상)에게 '재난 수당'으로 하루에 4,775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60일 동안 베테랑 선수가 받는 돈은 총 28만6,500달러에 이른다.

추신수(왼쪽 사진)의 올해 연봉은 2,100만 달러이다.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등록일수는 이 동일을 포함해 186일이다. 예정대로 시즌이 열렸다면 추신수의 '일당'은 11만2,900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탓에 원래 하루 수입의 4.2% 밖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연봉 2,000만 달러인 류현진(오른쪽 사진)도 4.4%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베테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이들보다 적게 받는다. 예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26·LA 에인절스)는 2018년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출신이지만 메이저리그 경력은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타니는 재난 수당으로 하루에 1,000달러밖에 받을 수 없다. 풀타임 3년 차인 최지민(29·탬파베이)이나 '빅리그 신인'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역시 오타니와 비슷한 상황이다. 상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당 1,000달러씩 총 6만 달러를 수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NBA 역대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

ESPN의 스포츠해설가 스킵 베일리스(69)가 NBA(미국프로농구) 역대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57)이라고 말했다.

베일리스는 최근 “조던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것이다. 조던이 역대최고선수다. 비단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던이 진정한 23번이다. 조던이 르브론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이어 베일리스는 “르브론은 승패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슛을 던지길 주저한다.”고 주장했다.

NBA의 시즌중단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마지막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소리가 많다. 제임스는 통산 9회 파이널에 올라 3회 우승을 차지했다. 파이널 MVP도 3회이다. 조던의 파이널 6회 진출, 6회 우승, 6회 파이널 MVP 수상에는 많이 모자란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NBA 사무국이 구단의 연습 시설을 폐쇄했지만 개인 체

육관에서 매일 아침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NBA리그 재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던 선수들이 잇따라 완치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2일 “케빈 듀란트와 세 명의 브루클린 선수들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됐다”라고 밝혔다. 브루클린 손 막스 단장은 “이제 모두 건강하다. 코로나19 확진 선수들이 14일간 자가격리 후 검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나머지 선수와 스태프도 괜찮다.”고 밝혔다.

듀란트를 비롯한 선수 4명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이상 지난 현재 완치됐다. 유타의 루디 고베어, 도노반 미첼, 디트로이트 크리스티안 우드, 보스턴의 마커스 스마트에 이어 지난 1일 LA레이커스 선수 2명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날 브루클린 선수들까지 최근 완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두루마리 화장지, 미국 골프 미니투어 우승자 부상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귀한 몸이 됐다. 미국, 유럽에서는 마스크, 손 소독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재기 열풍의 중심에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다. 마트에서도 가장 빨리 동이 나는 물건이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급기야 미국 미니투어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부상으로 등장했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뉴스는 이날 “에리조나주 선댄스 골프클럽에서 끝난 미국 여자 골프 미니투어인 캐터스 투어 11차전에서 우승한 새라 버넴(미국·사진)이 우승 상금 2,800달러와 두루마리 휴지 한 뭉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버넴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줬다.”고 말했다.

캐터스 투어 공식 페이스북에는 버넴이 양손에 우승 트로피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업데이트됐다.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하고 2019년 LPGA투어에 데뷔한 버넴은 상금랭킹 122위(6만6,000달러)에 그쳐 올해는 주로 미니투어에서 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중단됐지만 여자 골프 미니투어는 진행 중이다. 미니투어는 출전 선수도 50명 안팎이고 갤러리와 TV 중계가 없어 대회를 계속 열고 있다. 버넴은 “병치고 무래도 다 치웠고, 깃대도 절대 뽑는 일이 없다. 컵 속에 플라스틱 볼을 채워 넣어 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해놨다.”면서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경기한다.”고 설명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